

## 지프, '지프 파이낸셜 서비스' 공식 출범

지프가 KB캐피탈과 전속 금융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지프 파이낸셜 서비스'를 공식 출범한다. 지프 라인업의 주요 모델인 레니게이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구매시 선납금 10%에 최대 8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레니게이드(론지투드 2.4 FWD 기준)'를 구매할 경우 선납금 10%(361만 원)에 월 납입금 40만8000원에 지프의 오토가 될 수 있다.



## 생존 위해 변신 피하는 정유업계

# '주유소 혁신'...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

SK에너지,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 내트럭하우스에 태양광 발전 설치 에스-오일도 기존 주유소 리모델링 고객에 다양한 충전기 모델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이 맞물려 정유업계가 생존을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는 8억 781만 배럴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수소 및 전기차 확대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에 정유사들은 주유소를 수소 및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사업 플랫폼 등으로 진화시키며 저탄소·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 ●SK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스테이션 변신

SK에너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휴게, 주차, 정비, 주유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한 화물차휴게소)를 공유 인프라로 활용해 태양광, 전기차, LPG 충전, 수소 생산 및 충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총괄하는 친환경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먼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에너지는 2020년 말 기준 전기차 충전소 37개소(전기차 충전기 40기)를 운영 중이며, 전기차 사용자 수요에 맞춰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SK본사 서민사옥, 양평 주유소, 영종도 스카이파크 주유소 등에는 100kW급 급속 충전기도 갖춰져 있어



SK에너지가 1월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LPG충전소 부지에 오픈한 1호 수소충전소(왼쪽 사진)와 에스-오일이 파주시 직영 운영드림 주유소·충전소에서 시작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제 주유소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에너지·에스-오일

다양한 전기차종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1월 말에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LPG충전소 부지 내에 1호 수소충전소도 오픈했다. SK에너지가 운영을 맡고, 하이넷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공급을 담당한다.

SK에너지는 SK그룹이 추진 중인 수소사업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도 담당한다. SK는 2020년 12월 '수소사업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부생수소 공급을 맡고, SK에너지는 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 등을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린에너지 서비스 허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에너지는 주유소와 내트럭하우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주유소로의 변신도 꾀하고 있다. 주유소 개노피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현재 서울, 경기, 대구 등 13개소에서 상업 가동 중이다. 내트럭하우스는

부산 신항, 옥천, 평택 등 3개 사업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발전용량 총 1592kw)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 사업소(현재 전국 22개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사회책임가치(SV) 창출이 가능하다.

### ●에스-오일, 복합 스테이션 확대

에스-오일도 파주 직영 운영드림 주유소·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시작하며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3월 열린 제4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정관내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추가한 바 있다.

에스-오일 파주 운영드림 주유소·충전소는 기존 4개의 주유소와 충전소를 리모델링해 약 3000평 규모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이다.

운영드림 주유소·충전소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듀얼 모델(2대 차량 동시 충전)과 싱글 모델을 각 1기씩 설치했다. 설치된 충전기는 100kW급 급속 충전기로 충전용량 64kwh 전기차를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기존 전기차(니로EV, 코나EV)는 물론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5, EV6 등 국내 표준 DC 콤보방식의 모든 전기차에 충전이 가능하다.

정차 구역에 캐릭터 '구도일' 디자인을 적용해 친근한 분위기를 더했고 24시간 충전서비스, 대기 중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및 자동세차 할인서비스도 제공한다.

에스-오일은 관계자는 "이번 충전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전기차 인프라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향후 주요 거점 소재 계열주유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서울의 봄 명소를 소개하는 글로벌서울메이트 멤버들. 글로벌서울메이트는 서울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이를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조직으로 현재 55개국 130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팔로워 합계가 498만 여명에 달한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 온라인 봄나들이부터 스포티파이까지 '포스트 코로나' 겨냥 각국 랜선홍보전

서울관광재단, 홍보단 활용 봄 명소 팸투어 실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글로벌 관광업계가 백신접종을 통한 여행교류 재개를 대비해 치열한 온라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여행의 추억과 새로운 콘텐츠를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 때 쏟아질 여행소비자의 마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서울관광 홍보단 글로벌서울메이트를 활용해 서울의 봄 명소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첫 여행목적지로서 서울을 브랜딩하기 위해 기획했다. 영동포구와 함께 4일부터 시작한 이 팸투어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5개 국 1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의도로 뱃길길 축제인 '봄꽃 산책'을 비롯해 문래창작촌, 선유도 공원, 대림중앙시장 등 지역 명소와 요트(서울마리나), 63빌딩(아쿠아플라넷·뮤지엄오브컬러), 유람선(이랜드 크루즈) 등을 SNS로 소개한다.

이해진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은 "앞으로 자치구는 물론 민간업체와도 협업해 팬데믹 이후 여행목적지로 서울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관광산업 강국 스위스는 글로벌 음악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와 손잡았다. 스위스관광청은 자동차로 알프스 곳곳을 드라이브하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의 명소별 풍경과 정서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선곡한 전용 스포티파이 플레이 리스트를 마련했다. 취리히 호수길 드라이브는 본조비와 레드햇 칠리 페퍼스, 고타드 등 알프스 3대 고갯길은 블룬디와 티나 터너, 아르동과 사이옹의 포도밭 드라이브는 레이디 가가와 데이빗 보위 등 총 11개 플레이 리스트다.

그런가 하면 홍콩관광청은 국내에 팬이 많은 장국영의 영화와 음악을 추억하는 무료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장국영의 기일인 4월 1일 저녁에 그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을 배경으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 영화인과 영화 전문가들이 추억하는 홍콩영화와 추억, 여행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SK건설-한수원,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SK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자립형 및 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 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최초 RE100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인 '창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형 및 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 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최초 RE100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인 '창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 아토피와 여드름, 근원 치료로 재발 막아야

###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요즘같은 환절기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과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드름은 연령대에 따라 원인이 상이하다. 사춘기의 여드름은 대부분 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와 연관성이 있지만, 성인인 스트레스와 식습관, 수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아토피는 일반적으로 팔과 다리가 접하는 부위부터 얼굴 등 온 몸에 발생한다. 열감이 지속되거나 피부가 붉어지면 습진이나 건조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려움증과 진물을 동반한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식습관, 잘못된 음식 섭취, 환경호르몬 등 후천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토피나 여드름과 같은 만성염증 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부 표면만 조정을 맞춘 치료를 하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한방에서는 원인을 신체 내부에서 찾아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해 면역력 향상과 피부의 기능을 강화해 질환에 대응하는 몸 상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한약 처



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생활 습관 교정도 병행한다.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면역력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상태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한방 치료는 각자의 피부 상태와 체질에 대한 정밀 진단 후에 맞춤형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 전 풍부한 치료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보유한 한의사인지 확인하고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생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1대 1 맞춤형 한방 치료는 물론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식습관 개선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자신만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권장된다.

기장 일광한방병원 최연수 원장

편지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2020 선덕여왕 선발대회' 영광의眞 수상자들



1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히호텔서울에서 열린 '2020 선덕여왕 선발대회'에서 임상한 키즈 부문진 106번 이하진, 미스 부문진 405번 이수빈, 미스즈 부문진 307번 유미나, 시니어 부문진 201번 조경숙(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열리지 못했던 '2020 선덕여왕' 선발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임금이자 신라의 27대 왕인 선덕여왕의 업적을 알리고 그 면모를 본받기 위한 대회이다. 지혜롭고 당당한 선덕여왕의 지역체를 본받아 주체적이고 당당한 현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덕여왕'을 선발한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한복의 멋과 미를 알리고 세계 미인들의 대제전인 월드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 CJ-아주대 의료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CJ제일제당과 아주대 의료원이 질병 치료에 유용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체내 미생물 환경)' 공동 연구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

친 용어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일컫는다. CJ제일제당은 미생물 연구개발 경쟁력을 극대화해 유용한 마이크로바이옴 후보군을 발굴하고, 아주대 의료원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질병 치료 솔루션 개발을 맡게 된다.